



광주 금호고 선수들이 연장 후반 1분 결승골을 터트린 뒤 골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스포츠조선 제공>

홍태곤 결승골…금호고 축구 우승

전주공고와 연장 혈투 1-0 꺾어…주장 남기열 MVP

광주 금호고가 전주공고와의 연장 혈투 끝에 축구선수권대회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금호고가 3일 영광스포티움에서 열린 전주공고와의 제65회 전국고등학교 축구선수권대회 결승에서 연장후반 1분 터진 홍태곤의 결승골이 힘입어 1-0으로 대회 첫 우승을 차지했다.

'호남더비'로 진행된 결승전에서 금호고는 한 수 아래 전력으로 평가받은 전주공고를 맞아 힘겨운 승부를 끌쳤다.

대진운이 좋지 않아 전주공고보다 한 경기를 더 치르면서 체력적인 부담이 작용했다. 전주공고의 방어벽에 막힌 금호고는 좀

처럼 골문을 열지 못하면서 0-0으로 전후반 경기를 마감했다.

연장전에 돌입해서도 양팀의 힘겨루기는 계속됐다. 연장 전반 6분, 골키퍼 주정우의 선방으로 한 숨 돌린 금호고가 마지막 공세를 벌였지만 역시 드롭에는 실패했다.

하지만 연장 후반 시작과 함께 천금같은 결승골이 터졌다. 연장 후반 1분 미드필드 중앙에서 조진희의 패스를 받은 홍태권이 수비수를 제친 후 원발로 슈팅을 날려 전주

공고의 골문을 열었다.

경기 종료직전 전주공고의 마지막 슈팅이 매섭게 금호고 골문을 노렸지만 골키퍼 주

정우가 다시 한번 골을 막아내며 팀의 승리를 지켰다.

준결승에서 지난 대회 우승팀 광양제철고를 꺾고 결승에 진출했던 금호고는 연장전에 1-0의 승리를 장식하며 전국고교선수권 첫 제패에 성공했다.

한편 경고 누적으로 결승무대에 오르지 못했던 금호고 주장 남기열은 4강전까지 6경기에 출전, 1실점만 하용하는 철벽수비를 기록하며 MVP에 선정됐다. 금호고의 18번째 전국 대회 우승은 이끈 최우승 감독과 이승우 코치는 자자상을 받았다.

금호고의 권운호와 주정우는 각각 수비상과 GK상을 수상했다. 3위에 오른 광양제철고는 페어플레이상을 받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거미손 이운재 “16년 태극마크 반납”

11일 나이지리아전 은퇴 경기

“사람은 자신이 떠날 시기를 알아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고 밝혔다. 이운재는 지난 2010 남아프리카 월드컵을 치르면서 대표팀 은퇴를 생각해왔고, 조광래 감독과 축구협회의 배려를 통해 이번 나이지리아 평가전(11일 오후 8시·수원월드컵경기장)을 통해 은퇴 경기를 치를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이운재는 나이지리아와 평가전에 나서면 A매치 132경기를 뛰게 돼 A매치 135경기를 기록한 흥명보(올림픽 대표팀 감독)에 이어 역대 두 번째 A매치 최다출전자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

/연합뉴스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주역인 ‘승부차기 달인’ 이운재(37·수원)가 지난 16년 동안 가슴에 달았던 태극마크를 반납한다. 조광래(56) 축구대표팀 감독과 대한축구협회는 명예롭게 대표팀 은퇴를 결정한 이운재를 위해 오는 11일 나이지리아와 평가전에서 은퇴 경기를 치려주기로 했다.

이운재는 3일 “그동안 내가 보기에도 대표팀에 헌신해왔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후배들을 위해 자리를 비워줘야 할 때다”며

“나이지리아전 은퇴 경기”

이운재는 지난 2010 남아프리카 월드컵을 치르면서 대표팀 은퇴를 생각해왔고, 조광래 감독과 축구협회의 배려를 통해 이번 나이지리아 평가전(11일 오후 8시·수원월드컵경기장)을 통해 은퇴 경기를 치를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이운재는 나이지리아와 평가전에 나서면 A매치 132경기를 뛰게 돼 A매치 135경기를 기록한 흥명보(올림픽 대표팀 감독)에 이어 역대 두 번째 A매치 최다출전자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

/연합뉴스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주역인 ‘승부차기 달인’ 이운재(37·수원)가 지난 16년 동안 가슴에 달았던 태극마크를 반납한다. 조광래(56) 축구대표팀 감독과 대한축구협회는 명예롭게 대표팀 은퇴를 결정한 이운재를 위해 오는 11일 나이지리아와 평가전에서 은퇴 경기를 치려주기로 했다.

이운재는 3일 “그동안 내가 보기에도 대표팀에 헌신해왔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후

배들을 위해 자리를 비워줘야 할 때다”며

“나이지리아전 은퇴 경기”

이운재는 지난 2010 남아프리카 월드컵을 치르면서 대표팀 은퇴를 생각해왔고, 조광래 감독과 축구협회의 배려를 통해 이번 나이지리아 평가전(11일 오후 8시·수원월드컵경기장)을 통해 은퇴 경기를 치를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이운재는 나이지리아와 평가전에 나서면 A매치 132경기를 뛰게 돼 A매치 135경기를 기록한 흥명보(올림픽 대표팀 감독)에 이어 역대 두 번째 A매치 최다출전자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

/연합뉴스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주역인 ‘승부차기 달인’ 이운재(37·수원)가 지난 16년 동안 가슴에 달았던 태극마크를 반납한다. 조광래(56) 축구대표팀 감독과 대한축구협회는 명예롭게 대표팀 은퇴를 결정한 이운재를 위해 오는 11일 나이지리아와 평가전(11일 오후 8시·수원월드컵경기장)을 통해 은퇴 경기를 치를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이운재는 나이지리아와 평가전에 나서면 A매치 132경기를 뛰게 돼 A매치 135경기를 기록한 흥명보(올림픽 대표팀 감독)에 이어 역대 두 번째 A매치 최다출전자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

/연합뉴스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주역인 ‘승부차기 달인’ 이운재(37·수원)가 지난 16년 동안 가슴에 달았던 태극마크를 반납한다. 조광래(56) 축구대표팀 감독과 대한축구협회는 명예롭게 대표팀 은퇴를 결정한 이운재를 위해 오는 11일 나이지리아와 평가전(11일 오후 8시·수원월드컵경기장)을 통해 은퇴 경기를 치를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이운재는 나이지리아와 평가전에 나서면 A매치 132경기를 뛰게 돼 A매치 135경기를 기록한 흥명보(올림픽 대표팀 감독)에 이어 역대 두 번째 A매치 최다출전자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

/연합뉴스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주역인 ‘승부차기 달인’ 이운재(37·수원)가 지난 16년 동안 가슴에 달았던 태극마크를 반납한다. 조광래(56) 축구대표팀 감독과 대한축구협회는 명예롭게 대표팀 은퇴를 결정한 이운재를 위해 오는 11일 나이지리아와 평가전(11일 오후 8시·수원월드컵경기장)을 통해 은퇴 경기를 치를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이운재는 나이지리아와 평가전에 나서면 A매치 132경기를 뛰게 돼 A매치 135경기를 기록한 흥명보(올림픽 대표팀 감독)에 이어 역대 두 번째 A매치 최다출전자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

/연합뉴스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주역인 ‘승부차기 달인’ 이운재(37·수원)가 지난 16년 동안 가슴에 달았던 태극마크를 반납한다. 조광래(56) 축구대표팀 감독과 대한축구협회는 명예롭게 대표팀 은퇴를 결정한 이운재를 위해 오는 11일 나이지리아와 평가전(11일 오후 8시·수원월드컵경기장)을 통해 은퇴 경기를 치를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이운재는 나이지리아와 평가전에 나서면 A매치 132경기를 뛰게 돼 A매치 135경기를 기록한 흥명보(올림픽 대표팀 감독)에 이어 역대 두 번째 A매치 최다출전자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

/연합뉴스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주역인 ‘승부차기 달인’ 이운재(37·수원)가 지난 16년 동안 가슴에 달았던 태극마크를 반납한다. 조광래(56) 축구대표팀 감독과 대한축구협회는 명예롭게 대표팀 은퇴를 결정한 이운재를 위해 오는 11일 나이지리아와 평가전(11일 오후 8시·수원월드컵경기장)을 통해 은퇴 경기를 치를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이운재는 나이지리아와 평가전에 나서면 A매치 132경기를 뛰게 돼 A매치 135경기를 기록한 흥명보(올림픽 대표팀 감독)에 이어 역대 두 번째 A매치 최다출전자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

/연합뉴스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주역인 ‘승부차기 달인’ 이운재(37·수원)가 지난 16년 동안 가슴에 달았던 태극마크를 반납한다. 조광래(56) 축구대표팀 감독과 대한축구협회는 명예롭게 대표팀 은퇴를 결정한 이운재를 위해 오는 11일 나이지리아와 평가전(11일 오후 8시·수원월드컵경기장)을 통해 은퇴 경기를 치를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이운재는 나이지리아와 평가전에 나서면 A매치 132경기를 뛰게 돼 A매치 135경기를 기록한 흥명보(올림픽 대표팀 감독)에 이어 역대 두 번째 A매치 최다출전자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

/연합뉴스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주역인 ‘승부차기 달인’ 이운재(37·수원)가 지난 16년 동안 가슴에 달았던 태극마크를 반납한다. 조광래(56) 축구대표팀 감독과 대한축구협회는 명예롭게 대표팀 은퇴를 결정한 이운재를 위해 오는 11일 나이지리아와 평가전(11일 오후 8시·수원월드컵경기장)을 통해 은퇴 경기를 치를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이운재는 나이지리아와 평가전에 나서면 A매치 132경기를 뛰게 돼 A매치 135경기를 기록한 흥명보(올림픽 대표팀 감독)에 이어 역대 두 번째 A매치 최다출전자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

/연합뉴스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주역인 ‘승부차기 달인’ 이운재(37·수원)가 지난 16년 동안 가슴에 달았던 태극마크를 반납한다. 조광래(56) 축구대표팀 감독과 대한축구협회는 명예롭게 대표팀 은퇴를 결정한 이운재를 위해 오는 11일 나이지리아와 평가전(11일 오후 8시·수원월드컵경기장)을 통해 은퇴 경기를 치를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이운재는 나이지리아와 평가전에 나서면 A매치 132경기를 뛰게 돼 A매치 135경기를 기록한 흥명보(올림픽 대표팀 감독)에 이어 역대 두 번째 A매치 최다출전자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

/연합뉴스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주역인 ‘승부차기 달인’ 이운재(37·수원)가 지난 16년 동안 가슴에 달았던 태극마크를 반납한다. 조광래(56) 축구대표팀 감독과 대한축구협회는 명예롭게 대표팀 은퇴를 결정한 이운재를 위해 오는 11일 나이지리아와 평가전(11일 오후 8시·수원월드컵경기장)을 통해 은퇴 경기를 치를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이운재는 나이지리아와 평가전에 나서면 A매치 132경기를 뛰게 돼 A매치 135경기를 기록한 흥명보(올림픽 대표팀 감독)에 이어 역대 두 번째 A매치 최다출전자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

/연합뉴스

이동국이나 메시나 ‘골잡이 맞대결’

오늘 밤 K-리그 울스타 FC 바르셀로나 자존심 대결

K-리그 득점왕과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득점왕이 월드컵 무대를 떠나 울스타전 무대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끝 대결을 펼친다.

K-리그 울스타팀은 4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SBS생중계)에서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의 명문 FC바르셀로나와 FC바르셀로나 조정 K리그 울스타전 2010'을 통해 양국 프리리그의 자존심을 견 대결을 펼친다.

한국-스페인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친선전을 맞아 바르셀로나는 월드컵 휴가 때문에 스페인 대표팀 소속 선수들이 놓은 경기 예고하고 있다.

한국-스페인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친선전을 맞아 바르셀로나는 월드컵 휴가 때문에 스페인 대표팀 소속 선수들이 놓은 경기 예고하고 있다.

한국-스페인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친선전을 맞아 바르셀로나는 월드컵 휴가 때문에 스페인 대표팀 소속 선수들이 놓은 경기 예고하고 있다.

한국-스페인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친선전을 맞아 바르셀로나는 월드컵 휴가 때문에 스페인 대표팀 소속 선수들이 놓은 경기 예고하고 있다.

한국-스페인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친선전을 맞아 바르셀로나는 월드컵 휴가 때문에 스페인 대표팀 소속 선수들이 놓은 경기 예고하고 있다.

한국-스페인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친선전을 맞아 바르셀로나는 월드컵 휴가 때문에 스페인 대표팀 소속 선수들이 놓은 경기 예고하고 있다.

한국-스페인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친선전을 맞아 바르셀로나는 월드컵 휴가 때문에 스페인 대표팀 소속 선수들이 놓은 경기 예고하고 있다.

한국-스페인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친선전을 맞아 바르셀로나는 월드컵 휴가 때문에 스페인 대표팀 소속 선수들이 놓은 경기 예고하고 있다.

한국-스페인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친선전을 맞아 바르셀로나는 월드컵 휴가 때문에 스페인 대표팀 소속 선수들이 놓은 경기 예고하고 있다.

한국-스페인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친선전을 맞아 바르셀로나는 월드컵 휴가 때문에 스페인 대표팀 소속 선수들이 놓은 경기 예고하고 있다.

한국-스페인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친선전을 맞아 바르셀로나는 월드컵 휴가 때문에 스페인 대표팀 소속 선수들이 놓은 경기 예고하고 있다.

한국-스페인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친선전을 맞아 바르셀로나는 월드컵 휴가 때문에 스페인 대표팀 소속 선수들이 놓은 경기 예고하고 있다.